

【 경제 】

하반기 주택정책 큰 틀 변화 예고

지분형 분양주택 첫선·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민간업체 공공택지 개발권...분양가 인하 유도

도심 용역을 높이고 재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

작년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청약가점제 시행 등 주택정책의 큰 틀이 바뀔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주택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상반기에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벌써부터 내놓는데다 주택시장의 안정에 따라 추가로 규제완화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분형 분양주택 첫 선=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에 지분형 분양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분형 분양주택이 도입될 경우 자급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의 세부 모양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골격은 잡혀가고 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국민주

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공급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개시=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은 하반기부터는 내집 마련이 수월해진다. 건교부는 연간 12만가구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로 신혼부부전용 청약통장 신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첫 공급시기는 올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통장 가입대상은 결혼 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로 월 납입금액은 5만~10만원선이 고려되고 있으며 통장 가입자는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공급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성장을 4.5%대 한국 R&D투자 확대 시급”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내려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 연구개발투자(R&D) 절대금액을 현 국내총생산(GDP)의 3%미만에서 5%이상으로 올려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증가를 둔화와 고령화 진전, 저축률 하락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 패턴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6년 6.6%에서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주식형펀드 3주연속 손실

18일 기준 주간 평균 수익률 -6.93%

코스피 200지수 인덱스펀드도 -4.65%

글로벌 증시의 동반하락 여파로 코스피지수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가 3주 연속 손실을 냈다.

2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8일 기준 국내 일반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6.93%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하락률(-5.55%)보다 부진했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 수익률도 -4.65%로 역시 손실을 냈다. 주식투자 비중이 낮은 일반 주식형펀드와 일반 채권혼합형 펀드도 각각 -2.87%, -1.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주간 하락장에서도 가치주 펀드들이 주간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303개 국내 주식형(가타 인덱스 제외) 펀드들이 모두 손실을 낸 가운데 128개 펀드들이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올렸다.

펀드별로는 대표적인 가치주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주식1C4'펀드가 -2.48%로 주간 성과 1위를 차지했으며 '프린티어배당한아를주식CLASSCI'펀드는 -2.57%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월간수익률에서는 '유리스몰비티주식A'펀드와 '기은SG그림프리포커스금융주식'펀드가 각각 -0.48%, -0.94%의 수익률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변동금리 인하

국민은행 이번주부터 0.01%P 내려...석달만에 하락세 반전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석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자금이 증시로 이탈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증가한 등의 여파로 진정되면서 당분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민 주택대출자들이 한 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금리를 지난 주보다 0.01%포인트 낮춘 6.54~8.14%로 고시했다. 국민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작년 10월8일 0.01%포인트 인하 이후 석달여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17~7.87%와 7.08~8.12%로 각각 0.02%포인트 하락했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0.01%포인트 하락한 6.78~8.28%와 6.88~8.28%로 고시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CD 금리는 지난 16일 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데 이어 18일에도 5.87%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은행권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부 주택대출 금리는 금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백화점 '지역사랑 건강 캠페인'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9일 2층 구름다리에선 광주시 북구보건소·김병원 등과 함께 제 1회 지역사랑 건강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헌혈봉사, 금연·비만상담 등이 진행됐다. (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9일 2층 구름다리에선 광주시 북구보건소·김병원 등과 함께 제 1회 지역사랑 건강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헌혈봉사, 금연·비만상담 등이 진행됐다. (현대백화점 제공)

중국, 한국 최대 수입국 부상

지난해 630억 달러 ... 日 제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819억8천800만달러), 미국(457억7천만달러), 일본(264억1천100만달러), 홍콩(186억6천200만달러) 등의 순이었고 수입액은 중국(630억4천300만달러), 일본(562억5천500만달러), 미국(372억4천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은 중국(189억4천500만달러)이었고 홍콩(165억2천만달러), 미국(85억2천2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대 무역적자국은 일본(298억4천400만달러)이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390억4천600만달러)가 가장 많았고 자동차(372억8천700만달러), 무선통신기기, 선박, 석유제품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수입액은 고유가로 원유(602억5천200만달러)가 가장 많았으며 반도체(308억1천500만달러), 천연가스, 석유제품, 철강관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재계 '공격 경영' 위해

채용 규모 더 늘린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사업의 손조로운 진행을 위해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매출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2만8천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기업들이 속속 올해 채용계획을 내놓고 있다.

주요 기업 가운데 SK그룹, 금호아시아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 현대중공업, 대림그룹 등은 올해 채용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채용규모를 늘리려는 이유로 우선 사업확장에 따른 인력충원 필요성을 꼽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매출 신입사원들을 선발한다.

한편 IT 기업들도 신규인력 채용에 속속 나서고 있다. LG파워콤이 네트워크·영업·마케팅·고객서비스·경영기획·경영지원 등의 부문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0월 21일 이전 대출자부터 해당

금리 인하 혜택은 누구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하는 곧바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감소로 이어지는 않는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대부분이 91일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은행이 20일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를 지난 주보다 0.01%포인트 낮춘데 91일 전인 지난해 10월 21일 이전 대출자들부터 이자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금리인하 고시 당일 대출을 받을 경우 전날보다 0.01% 인화된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95%가 변동금리 방식으로, CD금리에 비용과 마진을 더해 결정된다. 따라서 CD금리가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91일물 CD금리가 은행 가계대출의 기준이 된 것은 지난 2000년 HS-BC가 'CD연동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이면서 시작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국 미분양 아파트 11만가구 넘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킵스뱅크에 따르면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11만3천845가구에 집계됐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공식 통계와 비교하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8년 8월(11만4천405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

이다.

특히 상당수 건설사들은 미분양 가구수를 줄여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제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20만가구를 넘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광주·전남도 12월 말 현재 공식 미분양 주택 수가 각각 9천424가구, 9천797가구에 달하는 등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로도복권 (제26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3 10 19 24 32 45	1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350,954,515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5,031,818	35
3 5개 숫자 일치	1,157,206	1,362
4 4개 숫자 일치	50,960	61,857
5 3개 숫자 일치	5,000	969,153

팝콘복권 (제91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122242
2	1억	2조 667548 4조 19386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61135
5	50만	각조 7742
		각조 43
6	2천	각조 73
		각조 78
		각조 0
7	1천	각조 4
		각조 7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화인코리아	[식품연구개발/생산관리]2008년 정규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2	061-330-4523
(주)광주광역시청	2008년 상반기 정규직 직원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2	062-224-8564
남해철강(주)	정규직 영업부 경력직 모집(서울/광주)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1/22	062-943-8676
(주)휴로넷	[주5일SK텔레콤(광주)법인영업 지원팀]남직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22	011-299-7000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디자인 업무담당 총원(광주점)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23	02-3478-0530
여성발전센터	2008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대원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3	062-383-5755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융합연구소	연구직 채용 공고(본부장/행정지원팀장/팀장/연구원)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1/25	062-970-3088
(재)우정복지협력회	광주우체국 금융창구경비원 급급(주5일근무제)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25	02-3706-1183
송원철강(주)	경리/전화응대/출발/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5	062-955-0967
토익건설(주)	토목현장 직영구함	고졸/경력1년	1800~2000	01/27	062-604-1336
(주)나이스에너지지니어링	[광주]배전관리원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1/27	051-329-7766
(주)진영종합건설	경리(회계담당, 원기배본) 사원모집	고졸/경력2년	1200~1400	01/27	062-361-6501
효인요양병원	병동 간호(간호사, 간호조무사)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27	062-720-1109
(주)이오하루스	폭스바겐 자동차 정비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351-9500

(광주직업코리아 512-6210 제공)

증시 전망 일단 '헛발질'

증권사 3주도 안돼 수정 전망치 내내

증권사들이 새해 들어 3주도 되지 않아 지난해 말 제시한 증시 전망이 크게 빗나가지 않을까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897.13으로 끝난 코스피지수는 18일 1,734.72까지 200포인트 가량 내려왔으며 18일 장중에는 1,700선이 붕괴해 1,684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지수의 하단을 전망했던 수치가 벌써 빗나가 부랴부랴 전망 수정 작업을 벌이는 증권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현대증권의 경우 올해 코스피지수의 고점을 2,100, 저점을 1,870으로 제시했으나 18일 종가는 이보다 13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바람에 대형 증권사로서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현대증권은 서둘러 올해 코스피지수의 상단은 2,000으로, 하단은 1,700까지 내렸다.

대우증권도 올해 코스피지수의 고점을 2,400, 저점을 1,800으로 제시했다가 기업수익 예상이 하향조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고점은 2,300, 저점을 1,700으로 내렸다. /연합뉴스

명절 스트레스...

女-음식 장만·男-교통체증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주 원인으로 여성들은 음식 장만을, 남성들은 교통체증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11~16일 자사 홈페이지 회원과 방문객 등 3천500명을 상대로 명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음식 장만'이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교통체증'(25%), '금전적 부담'(24%)이 뒤를 이었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음식 장만'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부담'(23%), '교통체증'(16%)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 응답자들은 '교통체증'(36%), '금전적 부담'(26%), '왕래가 없던 낯선 친척집 방문'(16%) 순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기업들 설 연휴로...

평균 5일·상여금 기본급 91%

기업들의 이번 설 연휴는 평균 5일이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91.3%로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20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에는 5일 휴무하는 기업 비율이 81.5%에 달하고 평균 휴가 일수가 5.1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17.6%가 법정 공휴일 이외에 휴가를 더 주는 단체협약에 따라 6일 쉬는 등 6일 휴무 기업 비율은 11.6%에 달했고 7일 이상은 2%, 4일은 4.9%였다. 상여금 지급 예정 기업의 비율은 67.0%로 작년(66.3%)과 비슷했다.

상여금 액수는 월 기본급의 91.3%로 작년의 83.1%에 비해 8.2%포인트 늘었으며 이 가운데 대기업은 95.0%로 8.6%포인트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은 89.3%로 6.9%포인트 늘어났는데 그쳤다. /연합뉴스